

평택시, '브레인시티' '도시 숲 모범도시'에 전력

'브레인시티'로 4차 산업 선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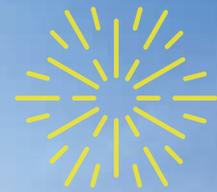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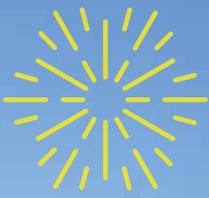
평택시(시장 정장선)가 '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' 조성 사업의 본격적 시작을 알리는 기공식을 최근 사업부지 내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. '브레인시티' 사업은 평택 도일동 일원 482만㎡에 기업, 연구, 의료, 주거시설 등이 복합된 지식 기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. 사업은 원활한 자원 조달과 신속한 추진을 위해 1·2단계로 나눠 진행된다.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(주)가 맡아 산업시설용지(146만㎡)를 개발하고, 2단계로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(주)가 복합용지 및 지원시설용지(336만㎡) 등을 개발한다. 평택시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성균관대와의 협약 무산으로 남겨진 대학교 용지 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이며, 최근 아주대와 협약을 통해 아주대 평택 제2 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클러스터 건립을 본격화한 바 있다. 이밖에 4차산업 관련 연구기관을 브레

인시티에 유치하는 공모도 준비 중이다. 평택시 관계자는 "브레인시티가 개발되면 경기도 내 일반산업단지 중 최대 규모의 산업으로, 7천879명의 일자리 창출과 1조3천364억원의 생산 효과가 유발될 것으로 전망된다"며 "평택항, 삼성평택고덕산단, 고덕국제도시 등 인근 인프라와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"고 밝혔다. 정장선 시장은 "브레인시티를 통해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,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"며 "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선도적인 산업단지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"고 말했다.



'도시 숲 모범도시'로 미세먼지 없는 도시 조성
평택시가 시민과 함께 나무 심기로 '도시 숲 모범도시'를 만들 계획이다. 평택시는 중국과 인접해 있고 당진·평택화력발전소, 평택항 대형선박, 각종 도시개발, 자동차 매연 및 분진 등 내·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미세먼지 취약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.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평택시는 '도시 숲'을 조성하고 미세먼지, 황사 등 환경오염물질을 저감하기로 했다. 이에 도시 숲 조성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이며, 사업비 500억원을 투입해 3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. 평택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나무·잣나무·산철쭉 등 나무 12만천그루를 도심, 하천, 유흥지 등지에 심었고, 2022년 12월까지 최소 30만 그루의 나

무를 심을 계획이다. 정장선 시장은 "바람길 숲' 조성 및 '미세먼지 차단 숲' 조성을 위한 110억원의 국비를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, 환경을 주요 현안으로 설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"고 말했다. ⑤



시민 중심 새로운 **평택!**
우리 **함께** 만들어요!

